| | |
|---|---|
| 수 신 | 각 언론사 국제부·사회부 |
| 발 신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담당 : 플랫폼C 홍명교 010-8717-2561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뎡야핑 010-5660-4701) |
| 제 목 | [보도협조]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2차 긴급행동 |
| 날 짜 | 2023. 11. 03. (총 5 쪽) |

# 보 도 협 조 요 청

##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 규탄

## 한국 시민사회 2차 긴급행동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Free Free Palestine!

일시·장소 : 11. 4. (토) 13:00, 청계천 무교동 사거리 (중구 무교로 32)

**1.** 취지와 목적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7일 이후 지금까지 사망자와 실종자가 1만 명이 넘으며, 그중 75%가 아동과 여성, 노인입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전력, 연료, 식량, 물, 의약품 등 모든 것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고, 가자 지구 병원의 절반이 폐쇄됐으며 남은 병원들 역시 몰려드는 부상자로 붕괴 직전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 자발리아 난민촌에 대한 공습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전 세계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한목소리로 이스라엘의 즉각 휴전과 학살 중단을 외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즉각적이고 항구적이며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휴전’ 촉구 결의를 채택했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인도적 재앙을 경고하며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휴전은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한국에서도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봉쇄 해제, 점령 중단을 촉구하는 2차 집회가 열립니다. **84**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11**월 **4**일**(**토**)** 오후 **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청계천 무교동 사거리에서 **2**차 집회와 행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2**차 긴급행동 **:**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Free Free Palestine!>**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이날 집회에서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종교인, 학자를 비롯해 유대인, 요르단인 등의 발언, 성명 <이스라엘은 즉각 휴전에 응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집단학살을 중단하라> 낭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거주 가자 지구 난민, 재한 팔레스타인인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집회 후에는 광화문과 종로 일대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 개요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2**차 긴급행동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Free Free Palestine!>**
- 일시·장소 : 2023. 11. 04. 토 13:00 / 청계천 무교동 사거리 (서울 중구 무교로 32)
- 주최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 프로그램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종교인, 학자, 유대인, 요르단인 등의 발언 / 성명 <이스라엘은 즉각 휴전에 응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집단학살을 중단하라> 낭독 / 집회 후 행진
- 문의 : 플랫폼C 홍명교 010-8717-2561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뎡야핑 010-5660-4701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주최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Urgent Action by S.Korea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 붙임자료1. 성명

# 이스라엘은 즉각 휴전에 응하고
# 팔레스타인 민간인 집단학살을 중단하라

이스라엘 점령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전방위적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10월 7일 이후 단 27일간 점령군이 학살한 가자지구 주민은 9,061명으로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아래 실종된 2천여 명을 더하면 1만 명이 넘는다. 학살된 주민의 75%가 아동과 여성, 노인이고 가족 단위로 몰살당한 이들은 73%에 달한다. 폭격에 더해 전면적인 전력과 연료 공급 차단으로 가자지구 병원의 절반이, 1차 의료시설의 3분의 2가 폐쇄됐다. 몰려드는 부상자로 남은 병원들 역시 붕괴 직전이다. 신생아와 환자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지금의 상황은 10월 7일 하마스의 알-아크사 홍수 작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하고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학살하고 추방할 때 시작된 것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대로 살던 땅에 '유대 국가'를 만들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된 인종 청소는 현재 800만에 달하는 난민을 만들었다. 팔레스타인 민중은 끊임없이 저항했지만 서구 열강의 지지 속에 75년간 이스라엘의 식민지배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그리고 점령군이 전례 없는 폭격을 쏟아붓는 지금, 서구 열강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서구 상업 미디어들은 이 전쟁을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침공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어전'으로 포장한다. 이러한 규정은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대한 무제한적 긍정과 묵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병원과 학교를 가리지 않는 대공습으로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지구 전역을 파괴하는 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방문하여 전쟁 수행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이스라엘 방어 보장"을 천명했다. 점령군의 '방어권'이란 가자지구 주택의 절반을 파괴하고 140만 주민을 홈리스로 만드는 것이다. 자발리아 난민촌 하나에 폭탄 6톤을 쏟아붓는 것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자발리아 난민촌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27일 유엔 총회는 '민간인 보호와 법적·인도적 의무 준수'(A/ES-10/L.25) 결의안을 채택하고, "적대 행위 중단으로 이어지는 즉각적이고 항구적이며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결의안에 기권했다. 10월 30일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지지와 UN 총회에서의 일에도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제노사이드에 침묵해 준 남한 정부에 고마움을 표한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카이로에서 테헤란까지, 이스탄불에서 바그다드까지 중동 전역의 시민들이 연일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런던에서는 10월 22일 50만 시민이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에 참여하며 거리를 가득 메웠다. 글래스고, 파리, 바르셀로나 등 유럽에서도 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직접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내 유대인들은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홀로코스트가 재현되어선 안 된다며 "네버 어게인", “지금 당장 휴전”을 외쳤다. 뭄바이,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케이프타운, 멜버른, 온타리오, 오사카, 타이페이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연대 행동이 끊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휴전을 외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민중들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식민 지배를 규탄하는 하나 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과 이스라엘의 정착민 식민주의 종식을 위해 투쟁하는 목소리와 함께하고자 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땅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그것의 가장 절박한 실천은 즉각적인 휴전과 학살 중단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존엄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에 함께할 것이다. 평화를 열망하는 세계 민중의 목소리에도 아랑곳없이 휴전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이스라엘은 당장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고 봉쇄를 즉각 해제하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포함한 모든 군사 점령지에서 당장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요구하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총 **87**개 단체**)**

(사) 우리누리평화운동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 검은참새들 - 한국어 사용 아나키스트 모임 |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 국제전략센터 |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 기후위기기독인연대 | 기후위기비상행동 | 나눔문화 | 난민인권센터 | 노동·정치·사람 | 노동당 |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 노동자혁명당(준) | 녹색당 | 녹색연합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도서출판 동연 |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 두번째테제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 |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 볼셰비키그룹 | 사단법인 개척자들 | 사단법인 아디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생명안전 시민넷 |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 서울인권영화제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성공회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 스튜디오 알 | 시민모임 독립 | 시시한 연구소 | 아카이브평화기억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연구소 창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천인권영화제 | 작은형제회 JPIC | 장애여성공감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주YMCA | 전환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책방토닥토닥 | 책사모 | 천주교 남자 수도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 칠무글방 | 캄캄밴드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바닥 | 평화바람 | 평화어머니회 | 플랫폼c | 한국영상기자협회 |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베평화재단 |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일동(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 향린교회 | TEFLNews.org